

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Self-Sufficiency and Welfare

KDISSW 자활정책 Brief

발행 2021년 11월 발행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13 삼창빌딩 5층

위드 코로나시대, 자활사업의 패러다임의 전환

김혜인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과장

- 자활정책 이슈 brief는 자활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정책아이디어를 시의성 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자활정책 이슈 brief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의 일상이 뒤흔들렸던 지난 1년반, 자활사업 또한 격변기를 경험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급여로서 자활근로 사업은 증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과 함께, 실업과 폐업으로 갈 곳 없어진 분들을 위해 당장 필요한 일자리 마련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자활근로 뿐만 아니라 자산형성지원사업, 자활기업 지원 등 자활사업의 모든 측면에서 ‘장기적 탈수급·자립 유도’의 목표와 ‘현재의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가동’이라는 당면과제 사이의 딜레마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사회복지 각계가 머리를 맞대는 본 공동학술대회에서 향후의 복지국가와 그 안에서의 자활사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주최해주신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귀한 시간을 내어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발제를 맡아 지난 20년간의 자활사업을 통계적으로, 제도적으로 큰 폭에서 조망해주신 데 대해 이상아·고은새 박사님과 백학영·황명주·박송이 교수님 등 연구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제를 통해 제시해주신 과제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고민하는 주제일 것입니다. 향후 대한민국에서 자활사업이 수행해야 할 기능과 달성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복지 영역과 시장 영역의 접점에 있는 자활사업의 내재적인 특성은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어느 하나의 경로를 이야기하기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활사업, 특히 그 핵심인 자활근로 사업은 ‘근로’와 ‘자활’이라는, 일자리 제공을 통한 근로·생계유지와 경제적 자립 달성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고용여건 악화를 포함한 외부 환경의 변화로 저숙련 노동 일자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창업 기업의 5년 생존율은 30%를 밑돌고 있습니다. 근로를 통한 자활이라는 IMF 직후 회복기 한국경제에서의 모델이 통용되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술 진보와 세계화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부 지원사업이 현재 남아있는 또는 향후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민간 시장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합니다. 당장 일거리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공공기관 내에 카페를 만들고, 수리·보수 사업을 확장하고, 다회용기 세척이나 재활용 등 신사업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이 다른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을 시작해 보지도 못하게 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자활사업이 20년 전 설정된 방향성에 따라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것은 어렵다는 점에 대해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중앙 부처로서 보건복지부 또한 이러한 지적의 핵심에 대해 공감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경로의존성은 이미 고착된 제도의 관성을 벗어나 다른 경로로 나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업의 새로운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제도 외부에서 발생하는 변화와 사회적 요구가 종종 개별 사업의 기존 발전경로의 수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활사업은 이를 고용노동부 사업의 확대와 취업성공패키지의 형태로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활사업에 발생하는 정책적 변화가 자활사업 내적으로는 사업 운영여건 등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수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더 심도깊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각계 자활사업, 사회복지, 사회적 경제 전문가분들과 함께 모든 방향성을 활짝 열어두고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5년, 10년, 15년 후 자활사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포함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분들, 그리고 관심 있는 청중들께서 자활사업의 미래에 대해 제시해주실 통찰을 기대합니다. 향후 20년간, 지난 20년과 같이 자활사업이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자활사업의 내적 논리와 외적 성과는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지, 많은 분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